

AI 시대에도 컴활이 '으뜸'...청년 취업자 최다 보유 자격증

500대 상장사 조사결과...내년 컴활 필기시험에 AI관련 문항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인공지능(AI)이 다양한 기업 사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지만 컴퓨터활용능력(컴활)은 여전히 청년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고용보험 연계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당기순이익 기준)의 만 18~34세 신규 입사자 6만5천743명의 대한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청년 취업자 2만3천55명 중 9천780명(42.4%)이 대한상의 시행 11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으며, 종목별로는 컴활 1급(5천473명)과 2급(3천967명)이 1, 2위에 올랐다.

2위인 컴활 2급도 3위인 지게차운전기능사(1천891명)의 2배가 넘었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체 응시자 2229만491명 중 최다 응시 인원을 기록한 종목은 컴활 2급(24만7천841명)이었고, 다음이 컴활 1급(15만1천464명)이었다. 이어 지게차운전기능사(11만316명), 산업안전기사(9만265명), 전기기능사(6만7천10명) 순이었다.

지난 10년을 살펴봐도 컴활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다.

컴활 1·2급의 연간 응시자는 2016년 각각 8만7천명, 15만3천명에서 지난해에는 15만1천명, 24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컴활이 단순히 스펙 쌓기를 넘어, 사무·행정직 진입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자격증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올바른 구조로 정렬하고 검증하는 데이터 통찰력과 기본기가 AI 활용 성과를 좌우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실제로 컴활은 단순히 프로그램 기본 기능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렬·검증하고 조건에 맞게 정제·추출하는 실무형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필기시험 출제 기준은 단순 사무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 이해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 AI의 원리와 학습 개념 ▲ AI의 활용 사례 ▲ AI의 한계 및 유의사항 등 문항들이 신설된다.

김기수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은 "대한상의는 산업과 업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컴활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시대인데 여전히 ‘컴활’ 자격증 따는 청년들... 작년 응시자 40만명



일러스트=유현호

최근 취직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컴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이 많은 업무를 대체하고 있지만, 결국 AI가 진행한 업무를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내 500대 상장 기업에 신규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만3055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11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97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개별 종목 별로 살펴보면, 컴활 1급 취득자가 5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컴활 2급이 3967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계

차운전기능사(1891명), 전기기능사(1814명), 위험물산업기사(1760명), 전기기사(1565명), 산업안전기사(1555명) 순이었다.

응시자 현황에서도 컴활 인기가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자격 시험 전체 응시자 229만491명 가운데 응시 인원인 가장 많은 종목은 컴활 2급(24만7841명)이었다. 이어 컴활 1급(15만1464명), 지계차운전기능사(11만316명), 산업안전기사(9만265명) 순이었다.

컴활 2급 응시자 수는 2016년 약 15만3000명에서 작년 24만7841명으로 62%가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컴활 1급 응시자 수는 2016년 약 8만7000명에서 작년 15만1000명으로 73.6%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자기계발 수요가 급증한 2021년 36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챗GPT나 제미니,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직장인의 많은 업무를 대체하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컴활을 따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다. 정동열 한국공학대 교수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맞는 구조인지, 흐름이 논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통찰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검증해 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기업들도 이 같은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활 자격을 취득하는 청년이 여전히 많은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AI 시대에도...취업 자격증 1·2위 모두 '컴활'

상의, 국가기술자격 보유 조사 디지털 직무 역량 경쟁력 입증 500대 기업 신입 9000명 취득

국내 주요 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1·2위가 모두 '컴퓨터 활용 능력(이하 컴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반 업무 처리 능력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2024년 신규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 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청년 취업자 2만 3055명 중 9780명(42.4%)이 대한상의 시행 11종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컴활 1급(5473명)과 2급(3967명)이 나

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91명)와 2배가 넘는 차이이다.

컴활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무 행정과 실무 데이터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렬·검증하고 조건에 맞게 정제·추출하는 실무형 역량을 종합적으로 본다.

취업 시장에서 디지털 직무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구직자들의

컴활 취득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체 응시자 229만 491명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컴활 2급(24만 7841명)이었다. 컴활 1급(15만 1464명), 지게차운전기능사(11만 316명), 산업안전기사(9만 265명), 전기기능사(6만 70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현기 기자

한국경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A25면

AI 시대에도 취업 필수 자격증은 '컴활'

청년 대기업 입사자 최다 보유

컴퓨터활용능력 1·2급이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신규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했다.

이들 중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청년 취업자는 2만3055명이었고, 종목별로는 컴활 1급이 5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컴활 2급이 3967명으로 2위였다. 지게차운전기능사(1891명) 전기기능사(181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컴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컴활 1급 및 2급 응시자는 2016년 각각 8만7000명, 15만3000명에서 지난해 15만1000명, 24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컴퓨터 활용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지만, 실무 기본기로서 컴활 취득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컴활과 전산회계운용사, 유통관리사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필기시험에 AI 원리와 활용 사례 등 AI 관련 문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기수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은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AI시대에도 ‘컴활’ 건재... 청년 취업자 자격증 1위

최근 10년간 1급 응시자 수 24% ↑
“데이터 다루는 능력 여전히 중요”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컴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실제 업무 현장에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당기순이익 기준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은 컴활 1급과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증이 있는 취업자 2만3055명 중 9780명(42.4%)이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11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고 이 중 컴활 1급은 5473명, 2급은 3967명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계차

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기사 순이었다.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고용보험 연계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근 10년간 응시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응시자가 폭증했던 코로나19 특수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2016~2019년, 2022~2025년의 연평균 응시자 수를 비교한 결과 컴활 1급 응시자는 14만9000명에서 18만4000명으로 23.4%, 2급은 18만명에서 21만9000명으로 21.3% 늘었다.

정동열 한국공학대 교수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맞는 구조인지, 흐름이 논리적인지 판단하는 통찰은 사람의 몫”이라며 “컴활 자격은 데이터 통찰력의 기본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청년 취업자 국가자격증 1·2위 ‘컴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당기순이익 기준) 신규 입사자의 대한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컴활) 1·2급이 취득자 수 1·2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만 18~34세 신규 입사자 2만3055명 중 컴활 1급 취득자는 5473명, 2급은 39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컴활 2급과 1급은 각각 24만7841명, 15만1464명이 응시해 전체 종목 가운데 응시자 수 1, 2위를 기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무업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정렬·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